

주 제 강 연



〈“국민보건의 추진성과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는데 看護界에 새로운 挑戰과 課題를 제시하고 있다”고 역설하는연사〉

看護의 새로운 展望

— 社会開發로의 轉換점에 즈음하여 —

한국개발연구원사회개발실장 朱 鶴 中

大韓看護協會 第43次定期總會의 主題인 「看護의 새로운 展望」은 여러가지 角度에서 接近하거나 또는 展開할 수 있다. 가령 學問的 體系로서의 看護學의 새로운 方向, 實踐科學으로서의 看護學의 새로운 領域 및 接近方法의 開發, 急變하는 保健醫療의 技術革新에 따르는 看護의 變化와 適應 등등 커다란 줄거리로서도 몇가지로 大別할 수 있으며, 細部事項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論題에 대한 接近方法은 더욱 많으리라 생각된다. 本主題가 經濟學者, 그중에서도 經濟發展論 專攻이며 政策課題研究에 종사하고 있는 本人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本主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經濟學者가 지닌 視角으로 接近하기로 한다. 즉 經濟, 社會發展論의 觀點에서 60年代 이후 世界的으로 그 類例가 흔치 않은 우리나라의 高度成長의 발자취와 이에 따르는 高度成長의 副作用을 살펴 보고 근래에 나타난 經濟成長第一主義에 대한 反省과 이를 反映한 보다 알찬 國家發展의 開發意志로 나타난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基調와 指針의 윤곽을 더듬어 본 후 이른바 經濟, 社會를 統合한 經濟社會開發 또는 眞正한 의미에서의 開發(Development)에 있어서 國民保健의 位置 및 그 重要性, 나아가 넓은 意味의 經濟社會의 進化論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看護界의 새로운 挑戰과 課題를 未來指向의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1. 자랑스러운 經濟成長의 발자취

한 國家의 經濟發展狀態는 흔히 1人當 國民所得의 水準에 의하여, 經濟成長의 速度는 그 增加率로서 表示되고 있다. 우리의 經濟發展水準은 어두운 歷史的인 過去——李朝의 封建社會, 日帝의 植民地經營, 國土의 分斷과 經濟的 昏迷, 6.25動亂과 戰災, 戰後의 復舊와 政治優先의 經濟政策 등등——로 인하여 60年代初에 이르기까지 가장 後進된 國家群에 속하는 1人當 GNP 100美弗 未滿에 불과하였다. 물론 50年代

後半(1957~61)에 이르러서는 매우 착실한 經濟成長率인 年平均 4.7%에 達하였으나 그 당시의 年 약 3%의 높은 人口增加率을 감안한다면 1人當 GNP의 增加率은 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實情이었다.

60年代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經濟成長의 발자취는 讀者나 筆者가 歷史의 山 證人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로 體驗한 바이다. 그러므로 經濟成長의 발자취를 일일이 열거하는 번잡을 피하고 1次 5個年計劃期間(1962~66)의 平均成長率 7.7%와 2次 5個年計劃期間(1967~71)의 平均成長率 10.5%가 지나는 意義를 두어가지 側面에서 強調하고자 한다. 첫째, 50年代 後半의 年平均成長率에 比較하여 1·2次 5個年期間에 이룬 年平均成長率의 增加가 지나는 意義가 一般 讀者에게는 근소한 比率의 差異로 表示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認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比率의 差가 內包하는 意味에 대한 一般人的 理解를 돕기 위하여 주어진 성장률로서 1人當 國民所得이 倍加하는데 필요한 所要年數를 구하여 보기로 한다. 즉, 人口增加率을 감안한 計劃以前期間인 1953~61年間的 1人當 國民所得增加率 1.26%로서는 1人當 國民所得이 倍加되는데 55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第1次 5個年計劃期間의 人口增加率을 감안한 1人當 國民所得增加率 4.96%로서는 14년, 第2次 5個年計劃期間의 1人當 國民所得增加率 8.6%로서는 8년이 소요된다. 이상과 같이 經濟成長率의 小小的 差이는 그 差異自體보다 더 큰 意味, 다시 말하면 1人當 GNP로 표시한 國民生活水準을 倍加하는데 要하는 年數에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經常弗貨로 表示한 우리의 1人當 GNP가 物價上昇率을 훨씬 上廻하는 1961년의 83弗에서 1968년에 168弗, 1973년에 376弗에 달하였고 지금에 있어서는 500弗을 훨씬 上廻하고 있다. 둘째, 世界各國의 經濟發展史를 통하여 60年代와 70年代初에 걸친 우리나라와 같은 高度 成長은 二次世界大戰 後의 敗戰國인 日本과 獨逸이 50年代에, 自由中國이 50年代 後半부터 60年代初에 이루어졌을 정도일뿐 開

發途上國으로서는 世界史上에 우리나라와 自由中國뿐이어서 두 나라가 開發途上國의 「모델·케이스」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經濟成長의 世界的 模範國이라는데 대하여는 이미 自他가 公認하고 있는 事實이므로 이에 대한 이 이상의 言及은 회피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가지 強調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와 自由中國의 國際比較에 있어서 60年代 中半까지만 해도 自由中國이 1人當 國民所得面에서 약 10년이 앞서 있었으나 70年代初에 이르러서는 약 5년이 앞서고 있으며 특히 石油波動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成長速度가 自由中國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自由中國을 앞설 展望이 밝으나 그 반면 南美的 「브라질」, 東南亞의 「싱가폴」 등의 나라들이 근래에 經濟成長의 모범국으로서 부각되고 우리를 뒤쫓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2. 高度成長의 成果와 副作用

이상과 같은 世界的인 우리나라의 高度成長은 실로 우리 生活周邊에 많은 改善과 變化를 隨伴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經濟社會와 生活周邊의 變化는 너무나 우리에게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장황한 叙述과 分析을 피하고 상징적인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1961년을 기준으로 하여 1974년까지 人口가 1.3倍, GNP規模가 不變價格으로 4倍, 輸出이 經常價格으로 약 1.5倍, 工業生産量이 10.6倍, 그중에서도 合板이 약 4倍, 綿糸가 5倍, 「시멘트」가 19.5倍, 肥料가 14.6倍, 造船이 13.5倍, 鐵鋼이 17.7倍, 精油가 12倍, 電力이 13倍, 電話加入者數가 9倍 등등으로 놀라운 伸張을 記錄하였다. 이러한 物量中心의 成長은 經濟社會變化에도 크게 變化를 주어 우리의 平均壽命은 1960년의 56歲에서 1970년의 65歲로 延長되었고 1974年の 住宅保有數는 1961년의 1.4倍, 中高等學生數는 3倍, 醫師數는 1.5倍, 看護員數는 약 3倍, 病院病床數는 2倍 등의 增加를 가져왔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여러 經濟社會指標의 變化는 對內外的으로 실로 자랑스러운 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留意하여 생각할 것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高度成長에 따르는 經濟社會의 成長率變化의 速度가 加速化하는데 따라서 經濟·社會의 여러 部門間的 成長과 變化上에 調和가 결여되고 急變하는데 대한 社會的 適應이 問題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國民의 開發意志를 集約하는 過程에 있어서 높아진 國民의 與望과 期待와 現實과의 부득이한 乖離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一連의 狀況을 高度成長의 副作用이라고 일컫는바 經濟的 側面에서 그 代表的인 것으로는 農·工業間 또는 大·中小企業間的 產業의 不均衡, 都市·農村間的 地域的 不均衡, 國際收支上의 不均衡, 가장 酷甚한 惡稅로 指稱되는 「인플레이」問題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現實에 先行하는 國民與望과 期待는 社會的 不滿 및 不安定要因을 이루고 社會參與와 이를 위한 不均等은 經濟的·社會的 富益富와 貧益貧의 惡循環을 招來하는 結果를 誘發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흔히 紙上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拜金主義와 社會規範 및 倫理의 不在에서 빚어진 家庭破壞, 靑少年 問題, 都市犯罪의 增加, 經濟·社會的 落後階層과의 發展 疎外住宅難, 誤導된 再修生 問題, 都市生活의 混亂과 混雜에서의 社會的 不安 등등은 先進國의 諸社會的 問題가 지닌 樣象을 보는 느낌이다. 醫療人力과 施設의 地域的 偏在과 相對的으로 높은 醫療酬價의 現象은 國民保健의 阻害要因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經濟性에 입각한 天然資源의 活用은 資源의 濫用과 枯渴을 招來하며 아울러 自然環境의 破壞와 公害를 誘發하고 있다. 資源問題에 있어서 특히 問題視되는 것은 現世代의 無限한 物質的 慾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資源의 濫用이 이어오는 世代의 福祉를 위하여 正當化될 수 있는가 하는 世代間的 倫理的 問題로까지 擴大될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高度成長論 또는 成長優先論 (Growthmanship)에 대한 보다 根本的인 反省은 金額으로 換算한 GNP와 物量의 增加로 나타낸 經濟成長이나 좁은 意味의 經濟發展이 누구를 위한 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反問이

다. 다시 말하면 1人當 GNP의 增加로 나타낸 經濟成長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은 程度의 國民福祉의 增進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先·後進國間的, 또는 高所得層과 低所得層間的 隔差를 深化시킴으로서 人類의 與望과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企業國民의 福祉厚生은 크게 改善되지 않은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經濟成長에 따르는 이러한 成長優先論에 대한 反省은 世界的인 것으로 UN에서는 發展의 基本方向을 『成長의 60年代』에서 「成長과 均霑의 70年代」로 그 力點을 轉換하였다.

3. 보다 알찬 國家發展을 위한 開發意志

우리나라는 그동안 3회에 이르는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推進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자랑스러운 經濟發展의 발자취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豫想하지 못했던 1973年 이후의 石油破動과 이에 따른 資源「내소남리즘」의 高潮는 先後進國의 不況과 通商障壁의 擴大를 몰아 왔고, 심지어 國際通貨體制의 基礎까지 흔들여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교육 수준이 높은 풍부한 人力단을 밑천으로 資本과 資源을 導入하여 輸出指向의 工業化戰略을 追求하던 우리에게 많은 打撃을 주었으며, 로마클럽의 「成長의 限界」라는 警告를 더욱 實感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와 60年代 高度成長의 副作用은 우리의 開發戰略에 對한 反省과 보다 알찬 國家發展을 위한 開發意志를 追求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기 위하여 企劃當局에서는 1977년부터 實施되는 第4次 5個年開發計劃의 作成指針으로서 成長·衡平·能率의 開發理念下에서 自立經濟, 社會開發, 技術과 能率의 革新 등 三大基本目標을 提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體系的인 開發戰略이 採擇된 이후 5個年計劃作成指針에서 衡平和 社會開發이 크게 浮刻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짧은 計劃史上에 있어서 커다란 進歩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經濟成長에 집착한 나머지

지 國家發展의 手段과 目的의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經濟動物(economic animal)」 또는 「日本株式會社」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日本을 들 수 있다. 先進國의 經驗과 그들이 開發한 科學技術을 活用할 수 있는 後進國의 利點을 充分히 善用한다는 觀點에서도 그들의 過誤는 우리의 開發意志를 가다듬는데 크게 參考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急進的인 開發過程에서 오는 不調和는 國家發展의 궁극적인 目標인 國民福祉增進을 阻害할 뿐 아니라 長期的으로는 高度成長 그 自體를 制動하는 要因으로 抬頭된다. 따라서 이러한 要因의 長期間에 걸친 等閑視는 始發點에 있어서 潜在力이 비슷한 두 나라의 經濟社會發展方向에 사소한 差異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經濟社會發展上的 差異를 結果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은 豫防的인 對處로서 制度的 改善이나 補完投資로서 그 初期에 適切히 解決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經濟社會發展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高度成長의 副作用과 未來의 發展制約 要因에 對處하기 시작한 것이 第3次 5個年計劃에서 강조된 農工間의 隔差를 緩化하려는 새마을運動이었다. 第4次 5個年計劃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國民福祉를 增進시키며, 經濟社會發展의 底邊을 擴大하기 위하여 그 計劃基調로서 「成長·衡平·能率」을 提示하였고, 社會의 衡平의 增進과 國民總和의 經濟的 基礎를 確固히 하기 위하여 社會開發을 促求하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은 就業機會의 擴大, 教育의 質的 改善, 庶民住宅建設, 低廉한 施療, 企業公開, 勤勞條件의 改善, 人口 및 產業의 地域的 分散, 社會保障制度의 擴充 등으로 集約할 수 있다. 第4次 5個年計劃作成指針의 基本目標로 浮刻된 이러한 一連의 政策的 課題는 國民經濟의 外形의 擴大와 併行하여 國民生活의 質的 改善에 注力함으로써 社會의 正義를 實現하고, 보다 알찬 國家發展의 跳躍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社會開發에 있어서의 國民保健의 位置

物量 中心의 發達概念에서 사람 本位로의 力

點 轉換으로 특징지어지는 社會開發에서는 一般的인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과 社會的 參與의 機會增進을 期하는 데 目標을 두고 있다. 國民保健의 目的이 國民健康의 增進에 있다면 社會開發이 指向하는 바와 얼마나 密接한 關係가 있는가 라는 것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의 중요한 內容으로 國民平均壽命의 延長과 疾病으로 부터의 解放을 그 要件으로 하고 있으며, 不可抗的으로 健康上의 不利한 階層의 不便을 除去하여 社會的 參與의 機會를 더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社會開發로의 接近에 있어서 保健, 教育, 住宅 等の 社會部門에 對한 個別部門을 對象으로 展開 될 수도 있다. 그러나 社會部門이 갖는 相互關聯性, 例를 들면 衛生環境과 住宅, 豫防과 教育, 醫療人力 및 施設의 分布와 地域社會開發, 環境汚染과 疾病 등등의 유기적 관계 때문에 統合的인 方法으로 社會開發로의 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統合的 接近의 試圖로서는 所得分配, 人力開發, 都市 및 農村 地域社會開發, 人口政策 等の 戰略的 要因에 對하여 集中的인 攻略이 一般的으로 採擇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社會開發을 一般的으로 規定한다면 社會開發의 不可缺한 要件으로서 健康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個人이나 社會나 國家의 인 次元에서도 가장 重要하게 認定되는 것이다. 흔히 健康하게 산다고 할 때 疾病에서 保護하는 醫療 서비스의 圓滑한 供給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狹意의 保健의 領域을 넘어 事前 및 事後管理를 從的·橫的으로 包括한 것을 意味한다. 또한 國民保健의 全般的인 水準은 國民生活水準과 극히 密接한 關係가 있다. 國民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營養狀態가 改善되는 것은 勿論 疾病의 根源을 除去하기 위한 衛生的인 基本生活環境이 向上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보면 庶民의 住居問題와 住居環境으로 給水 및 下水處理問題 등 基本生活環境 造成이 大端히 落後된 感이 없지 않다. 公害는 局地的인 問題라고 輕視하는 傾向이 있으나, 大氣汚染은 그렇다 하더라도 降雨量이 季節的으로 集中되고 沿海水産

물의 依存度가 높은 實情으로서 河川과 沿海의 水質汚染은 注視되어야 할 現象이다. 人類가 社會的 動物로서 團體生活를 營爲하는데 따라 感染性있는 傳染病疾患은 統制되고 이에 따르는 人的·物的 損失을 防止하기 위하여 傳染病豫防도 配慮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에 國民保健의 位置는 社會開發에 있어서 매우 重要할 뿐 아니라 教育, 住宅, 國土開發, 産業政策 등 여러 部門의 政策展開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더욱이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과 社會的 機動性的 增進을 기하는데 있어서 國民保健과 健康의 增進은 必須的인 要件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生産性이 높고 能率的인 풍부한 人力을 確保함으로써 經濟社會發展의 底邊이 擴大된다.

5. 看護界의 새로운 挑戰과 課題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과 社會的 機動성을 增進시키는데 중요한 要件인 國民保健向上은 保健醫療要員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다. 社會開發에 力點을 두는 轉換期에 있어서 保健醫療要員의 集團으로서 看護界에서 擔當할 役割은 再來에 擔當하여 왔던 役割이 더욱 擴張, 擴充될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의 發展과 進化에 따르는 時代的 挑戰에도 副應하여 擴散될 것으로 展望된다. 開發途上國의 커다란 成長의 制約인 國際收支上의 慢性的 赤字를 緩和시키기 위하여 海外人力의 進出으로서 귀중한 外貨를 稼得 하었을 뿐 아니라 模範的인 勤務態度로서 우리나라에 對한 좋은 印象을 外國社會에 새겨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 이러한 人力輸出은 海外에 進出한 看護員 여러분이 實한 젊음을 불사른 犠牲 위에 이루어 졌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우리 經濟社會가 成熟段階에 이르던 國內에서의 이들의 奉仕를 必要로 하는 時代가 올 것으로 믿어마지 않으나 최소한 80年代初까지는 풍부한 人力供給과 國際收支上의 赤字가 豫想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看護人力을 유럽, 中東 및 기타 地域에도 進出함으로써 人力輸出을 통한 經濟成長에 直接的인 寄與가 繼續 擴大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人力輸出은 그야말로 外貨 稼得率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原資材輸入依

存도가 높은 우리나라 輸出商品에 비하여 國際收支上의 寄與는 大端히 크다고 하겠다.

둘째로 治療中心 醫療의 概念에서 國民保健醫療의 概念이 在來의 疾病治療에서 豫防과 再活의 概念으로 擴大될 뿐만 아니라, 快適한 生活環境의 助成과 保全까지를 包含한 사람다운 生活를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社會的 機動성을 提高할 수 있는 健康의 質的 向上에 이르는 모든 領域으로 擴充되고 擴散되는 데 따라서 이에 從事하는 看護員의 役割은 世界的인 趨勢로, 더욱 多樣化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近代文明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副産物로서 精神疾患과 慢性病과 老齡階層의 急增은 直接的인 治療活動을 擔當하고 있는 醫師보다 看護員의 役割이 더욱 擴範圍하게 되는 傾向이 없지 않다. 이러한 領域에 속하는 看護員의 役割로서 在來에 直接診療活動醫療人으로서의 豫防醫學의 實踐者와 커다란 一次診療患者의 比率에 對한 健康指導, 地域社會와 教育機關에서의 保健教育, 集團과 職場에서의 公衆保健指導, 身體障礙者와 産業災害者의 再活 및 再生施設, 女性의 社會進出과 核家族에 따르는 託兒事業 및 養老施設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풍부한 潜在人力의 供給과 우수한 醫療要員의 養成機關으로서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國民保健에 있어서 後進性和 阻害要因은 이를 除去하고 克服하는 데 看護界에 커다란 挑戰과 課題를 提示하고 있다. 가령 인접한 日本이나 自由中國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嬰幼兒死亡率이 훨씬 높았던지, 豫防可能한 急性傳染病과 寄生蟲疾患이 대단한 水準에 常存한다던지, 農漁村의 住民이나 低所得階層은 一次診療조차 받을 수 있는 機會가 거의 없었던지 하는 現實은 뜻있는 看護要員의 손길을 渴求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끄러운 現實을 克服하기 위하여서는 安全分娩介助率의 提高와 母子保健管理의 強化, 國民保健教育의 普及, 저렴한 醫療供給體系의 完成이 時急한 바 이러한 分野에 看護要員의 보다 積極的인 參與가 期待된다. 부끄러운 國民保健의 現實과 社會開發로의 轉換期에 즈음하여 看護員의 師表인 「후르렌스 나이팅게」이 發揮하였던 崇高한 人類愛를 再現할 수 있는 機會와 挑戰에 看護의 새로운 發展이 있다고 하겠다.